

##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이 명 우\*      박 정 민      이 문 희      임 영 선  
한국청소년상담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탐색한 기초연구이다. 연구자들은 현재 상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 사례개념화 작업과정, 사례개념화 평가준거, 사례개념화 교수방법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결과는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을 통해 분석되었고 그 세부 영역과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는 기초적 요소, 심층적 요소(개인내적 / 대인관계적)로 분류되었다. 둘째,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은 요소를 통합하기, 수정/보완하기, 사례에 적용하기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유의할 점들로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하기, 단정적 태도를 버리고 수정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기 등이 있었다. 셋째, 사례개념화 평가준거는 적절한 정보의 양, 요소간 연결의 적절성,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 이해 정도가 나타났다. 넷째, 바람직한 사례개념화 교수방법은 이론지도, 모델링, 연습, 토론, 피드백,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수련기 초기나 중기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교육내용과 과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사례개념화, 상담교육, 상담전문가, 경험적 지식

---

\* 교신저자 : 이 명 우, (100-824)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2-2234-7069, E-mail : lmw@kyci.or.kr

1980년대에 접어들어 슈퍼비전에서 다루어 왔던, 내담자 문제의 이해에 근거한 상담전략의 구상이라는 영역이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 또는 사례공식화(case formulation)란 이름으로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선행연구들(손은정, 2001; 이명우, 연문희, 2003; 이운주, 2001; 장재홍, 안창일, 1999; Eells, 1997; Kendjelic, 1998; Loganbill & Stoltenberg, 1983; Meier, 1999)의 사례개념화 정의를 살펴보면 용어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이들은 사례개념화를 내담자의 주호소문제와 관련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과 경로를 가설적으로 검토한 후 내담자의 주호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들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슈퍼비전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사례개념화가 독립된 연구영역이 된 이후, 연구는 크게 사례개념화 관련 변인 연구(예: 김계현, 이운주, 2002; 김은혜, 2001; 손은정, 2001; Mayfield, Kardash, & Kivlighan, 1999; Miguel, 1995; Seem & Johnson, 1998)와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예: 김수현, 1997; 이명우, 2003; 이운주, 2001; 장재홍, 1999; Jongsma & Peterson, 1995; Kendjelic, 1998; Loganbill & Stoltenberg, 1983; Prieto & Scheel, 2002; Stevens & Morris, 1995)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있으나(문수정, 1999), 초기와 중기 상담자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왕은자, 2001). 따라서 사례개념화 교육 대책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이명우, 2003; Hulse & Jennings, 1984; Messer, 1996; Murdock, 1991), 상담의 전문성 고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후자의 연구가 강

조되어야 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교육)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사례개념화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Steven과 Morris (1995), Jongsma와 Peterson(1995), Prieto와 Scheel (2002) 그리고 이운주(2001)는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있는 정보를 탐색하여 상담자가 자신의 이론적 관점 안에서 재통합해 상담전략을 구상하는 사례개념화 양식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범주의 연구들에서는 상담자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제기한 사례개념화 양식을 준수함으로써 사례의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도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향상에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Loganbill과 Stoltenberg (1983), Kendjelic(1998) 그리고 이명우(2003)는 상담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개념화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적용한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범주의 연구들에서는 개발한 사례개념화 교육내용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사례개념화 교육내용이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반화하였다.

사례개념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수련기 초기와 중기 상담자는 상담실제와 관련 있는 자신의 상담이론을 정립해 가는 단계에 있다(김계현, 1992; Brammer, Abrego, & Shostrom, 1993; Cummings, Hallberg, Martin, Slemon, & Hiebert, 1990). 이들은 상담실무에서 자신의 상담이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불완전한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일관성있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의 주 대상이 되는 수련기 초기와 중기 상담자에게 유용한 사례개념화 교육내용을 구상할 때, 보다 세밀한 교육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런 맥락에서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례개념화 영역이 수퍼비전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이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데 미흡했다. 이운주(2001)와 이명우(2003)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요소들을 도출하고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요소들을 확정짓거나 구체화한 바 있다. 이들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요소들을 찾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사례개념화 교육내용이 상담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상담현장의 수퍼비전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사례를 직접 진행하거나 수련기 초기와 중기 상담자를 대상으로 사례지도를 하는 상담전문가들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향후 사례개념화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이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할 때 어떤 요소들을 탐색

하는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이 내담자에 관한 기초정보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해 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이 내담자의 문제에 관해 사례개념화 내용을 평가하는 준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이 수련기 초기와 중기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담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담전문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적용하였다. 첫째, 한국상담심리학회(2002)의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일 것. 둘째,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부터의 상담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일 것. 셋째, 현재 진행중인 상담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 넷째, 사례개념화 작업이나 교육에 익숙할 것. 한국상담심리학회(2002)의 상담심리전문가 수첩(2002년)에서 위의 기준 모두를 충족시킬만한 후보 40명을 선정하였고, 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전문가의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연구도구

표 1. 연구대상 정보(N=11명)

|               |  |
|---------------|--|
| 성별            | 남자 : 4명(36.4%), 여자 : 7명(63.6%)                               |
| 나이            | 평균 : 43.91세(SD=5.82)   |
| 소속            | 대학상담센터 : 6명(54.5%), 상담기관 (45.9%)                             |
| 상담경력          | 평균 : 16.45년(SD=5.39)   |
| 현재 진행 중인 사례 수 | 평균 : 6.91사례(SD=6.17)   |
| 상담 주요 접근 방법   | 절충 : 6명(54.5%), 정신역동 2 (18.2%), 기타(27.3%)                    |
| 수퍼비전 경력       | 평균 : 7.45년(SD=3.14)  |
| 전문가 자격증 소지기간  | 5년 이상 8년 미만 : 6명(54.6%), 8년 이상 10년 미만 4 (36.4%), 10년 이상 9.0명 |

###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사례개념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예: 이명우, 2003; 이운주, 2001; Kendjelic, 1998; Loganbill & Stoltenberg, 1983; Prieto & Scheel, 2002; Stevens & Morris, 1995)을 검토한 후 질문 초안을 만들었고, 사전 예비 인터뷰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사례개념화를 할 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 (2) 각 요소를 어떻게 엮는가? (3) 사례개념화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4) 교육이나 슈퍼비전을 할 때, 사례개념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5) 초심자들이 사례개념화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인터뷰를 할 때는 최대한 상담전문가의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5개의 큰 질문 문항 이외에는 촉진적 반응만 하도록 노력했다.

### 연구절차

먼저 인터뷰 질문지 초안을 가지고 상담심리사 1급 2명에게 사전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인터뷰 질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준에 맞는 상담전문가 40명에게 접촉하여 본 연구에 대해 안내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상담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인터뷰를 하였다. 1인당 인터뷰 시간은 약 30분에서 50분 정도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완전어록으로 정리되어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간의 논의와 동의과정을 통해 경험자료 내용을 범주화하고 감수자에게 검토를 받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방법을 사용하였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CQR은 주관적 경험내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 현상을 기술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며 적은 수의 사례가 심도있게 연구되는 특징(Knox, Hess, Petersen, & Hill, 1997; 이진희, 윤호균 재인용, 2001)을 지녔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 감수자 및 연구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와 감수자

CQR 연구팀은 연구자 4명(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모여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자들은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읽은 다음, 인터뷰 내용을 분류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사례개념화에 관한 생각들을 나누어 연구자들의 편견대로 인터뷰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 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인터뷰 내용을 분류하면서 영역과 중심개념이 서로 일치될 때까지 협의하였다. 감수자는 질적 연구방법에 능숙한 박사학위 소지자 1명으로서, 3회에 걸쳐 영역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감수자는 원자료의 의미가 영역과 중심개념으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검토하고, 부적절하게 된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인터뷰 원자료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연구자들간, 그리고 연구자들과 감수자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

**자료준비:** 연구자 4명이 직접 상담전문가 11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례개념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후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영역코딩:** 영역 코딩은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군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이승은, 정남운, 2003). 연구자 4명이 축어록을 개별적으로 읽고 판단한 후, 함께 모여 사례별 영역과 전체적인 영역 결정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영역들이 결정되었다.

**중심개념코딩:** 중심개념코딩은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작업이다(이승은, 정남운, 2003). 4명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영역별 중심개념의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며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교차분석:** 교차분석은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중심 개념들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하나의 범주들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범주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이승은, 정남운, 2003). 이와 같은 영역코딩과 중심개념코딩, 교차분석 작업을 위해 연구자 4명이 함께 4일 동안, 총 27시간의 집중작업을 하였다.

**감수과정:** 박사학위소지자 1인의 감수자가 축어록 원본과 연구팀의 영역/중심개념 합의 자료를 검토해서,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명확하게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교차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고 팀의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들은 3회에 걸친 감수에서 받은 피드백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 연구결과를 결정하였다.

**결 과**

총 11명의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탐색한 결과, 사례개념화 요소, 사례개념화 작업과정, 사례개념화 평가준거, 사례개념화 교육방법으로 모두 4개의 영역이 나타났다. 각 영역과 그에 따른 범주내용은 표 2 ~ 표 5에 제시하였다. Hill 등(1997)은 표집의 대표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2 ~ 3사례 혹은 반 이하에 적용되는 경우는 ‘변동적’으로 표시하고, 한 두 사례에만 적용되는 범주는 제외시키거나 자료를 버리지 않기 위해 범주를 확대해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맞춰 11사례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 6 ~ 10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형적’, 5사례 이하는 ‘변동적’으로 표시하였다.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는 기초적 요소와 심층적 요소로 구분되었다. 심층적 요소에는 개인내적인 요소와 대인관계적인 요소가 포함

된다. 기초적 요소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반면 심층적 요소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보보다 더욱 깊이 있게 탐색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기초적 요소:** 첫 번째 범주는 ‘기초적 요소’[일반적]이며, 총 11개의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동적 문제점, 특성, 상태’, ‘내담자의 현재 문제’, ‘호소문제’, ‘첫 기억’, ‘상담실에 오게 된 문제’, ‘내담자의 말투나 외모’를 기초적인 요소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내담자의 현재 문제를 봐(사례4)1).  
애의 현재 일어나는, 나한테 호소하는 문제가 뭐가(사례5)*

**심층적 요소:** ‘심층적 요소’는 2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구분된 첫 번째 범주는 ‘개인내적 요소’[전형적]이며, 총 10개의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의 장점(자원)을 본다’, ‘어린 시절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찾게 된다’, ‘내담자가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을 본다’, ‘문제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탐색한다’ 등이 있었다.

*현재의 당면한 문제, 오게 된 계기가 되는 문제. 그것에서 출발하는데 그 증상이 있기에 앞서서 생기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거 히스토리하고 연관이 있고 그것이 핵심적인 감정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게 되지...(사례8)*

1) 인터뷰 내용 발췌는 일반적 / 전형적 범주에서만 소개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대인관계적 요소’[전형적]이며, 총 8개의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본다’,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혹은 기억을 탐색한다’,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는 패턴을 많이 본다’, ‘상담 중에 상담자가 갖게 되는 감정을 탐색한다’ 등을 언급하였다.

*관계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친구관계일 수 있는데, 가족 내에서의 어떤, 부모, 형제 관계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학교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특성은 어떤가, 그 다음에 교사하고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사례1).*

#### 사례개념화 작업과정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은 ‘요소를 통합하기’, ‘수정/보완하기’, ‘사례에 적용해 보기’,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에서의 유의점’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범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소를 통합하기:** ‘요소를 통합하기’는 총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 범주는 ‘요소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상상해 보기’[변동적]였다. 총 3개의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들을 고려한다’, ‘맞나 틀리나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내담자가 왜 그랬을까 다각도로 생각해 본다’가 있었다.

두 번째 범주는 ‘요소를 맞추고 패턴을 이해하기’[일반적]였다. 11사례 모두가 이 범주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한다’, ‘사례개념화를 할 때는 요소 요소를 엮는다’, ‘사실정보들과

현상학적인 정보들, 상담자가 갖는 내담자에 대한 느낌과 맞아떨어질 때 이해가 된다' 등이 있었다. 상담전문가들 모두가 요소를 맞추고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을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례 2와 4의 경우는 이 과정을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사례 2의 경우에는 바구니를 짜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사례 8의 경우에는 '지적으로만 통합되는 것보다는 더 직관적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전문가들이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를 맞추고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형성된 상담자의 전문적 직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담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정서가 뭔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행동특성이 무엇이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요소를 보지, 요소를 보고서 그것들의 관계를 계속 엮어 가지요(사례5).*

*Trauma가 되는 감정적인 몇 가지 에피소드를 내가 갖고 있고, 그 감정의 기원이라는 거를 내가 갖고 있어서 개념화를 할 때 감정 쪽에다가 하나를 두고, 하나는 이 사람의 호소 문제나 기대와 연결시켜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지요(사례6).*

세 번째 범주는 '목표 및 전략을 세우기'[변동적]로 나타났다. 총 3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목표를 형성해 가는데 사례개념화는 지도 같은 것이다', '패턴

을 잡으면 전략을 세운다' 등이 있었다.

**수정/보완하기:**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범주는 '수정/보완하기'[변동적]이다. '수정/보완하기'란 주로 상담자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다. 4개의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자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한다', '퍼즐을 수정하게 된다', '핵심이 잡히면 갖고 있으면서 이후에 이

2) 표 2.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sup>2)</sup>

| 영역                      | 범주   | 빈도  |
|-------------------------|--|-----|
| 사례<br>개념화에<br>필요한<br>요소 | 1) 기초적<br>요소<br><br>(사례1)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동적인 문제점, 특성, 상태<br>(사례4) 내담자의 현재 문제<br>(사례6) 상담에서 원하는 것<br>(사례7) 호소문제<br>(사례8) 첫기억<br>(사례8) 상담실에 오게 된 문제<br>(사례10)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왔는지 살핀다.<br>(사례11) 내담자의 말투나 외모  | 일반적 |
|                         | 1) 개인내적요소<br>(사례1) 개인의 장점(자원)을 본다.<br>(사례2) 현재 문제가 어떤 성장과정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br>(사례3) 어린 시절의 장면 중에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을 찾게 된다.<br>(사례4) 문제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생긴 것인가 탐색한다.<br>(사례5) 중요한 정서 때문에 생기는 행동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살핀다.<br>(사례7) 내담자가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을 본다.<br>(사례8) 증상이 있기에 앞서서 생기는 감정을 살핀다.<br>(사례9) 어떤 대인관계 패턴에서 생기는지 살핀다.<br>(사례11) 자주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 세상 자기를 보는 방식 사고패턴을 살핀다.   | 전형적 |
|                         | 2) 심층적<br>요소<br><br>2) 대인관계적 요소<br>(사례1)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br>(사례4)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본다.<br>(사례6)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기억을 탐색한다.<br>(사례6) 대인관계양식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원을 파악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나 하는 것을 탐색한다.<br>(사례7)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본다.<br>(사례9) 대인관계패턴, 사람을 대하는 패턴을 많이 본다.<br>(사례9) 사람을 대하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가족력을 탐색한다.<br>(사례10) 초기관계나 초기 6세 이전에 감정양식이나 초기관계, 어떻게 양육되었나를 살핀다.<br>(사례10) 상담 중에 상담자가 갖게 되는 감정을 탐색한다. | 전형적 |

2) 대표적 사례만 제시: 일반적-100%, 전형적-50% 이상, 변동적-50%미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증거들을 찾고 비슷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 상담자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개념화시키고 생각해 본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놓친 것도 생각하고 왜 그것을 놓쳤을까 하면서 내 문제하고 관련하여 생각하고 계속 만나면서 검증을 한다' 등이 있었다.

**사례에 적용하기:** '사례에 적용해 보기'[전형적] 범주에는 모두 7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 범주가 위의 '수정/보완하기'와 차별되는 점은 상담자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상담자-내담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사례개념화가 활용되는 점이라 하겠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내담자에게 물어 본다', '상담자가 발견하고 엮어지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 준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이전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례개념화가 유용하다'가 있다. 상담전문가들은 이미 형성한 사례 개념화에 대한 내용을 내담자에게 전달 혹은 적용하면서 상담 과정에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내용을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해수준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를 해서 맞춰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해서 내담자가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섭니다(사례4).*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런 핵심감정에 대한 추론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걸 내담자한테 공감을 하면서 드러내 놓을 때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가 이제 확인되는 그런 과정입니다(사례8).*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에서의 유의점:**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에서의 유의점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할 것', '이론숙지와 자기이해를 통해 전문적 준비를 할 것', '단정적 태도를 버리고 사례개념화가 수정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것', '해결사 역할을 지양하고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할 것' 등 모두 4개의 범주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범주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할 것'[전형적]이었다. 이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8개의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하는 것', '지엽적인 것을 불필요하게 탐색하지 않도록 한다', '인생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안보고 증세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였다. 상담전문가들은 수련기 초기 상담자들이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정보에 매달려 상담을 비효율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언급하였다.

*개념화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 초보들이 들어오면 어린 시절을 안 다루면 뭔가 빼먹고 가는 느낌이 들어(사례3).*

두 번째 범주로는 '이론숙지와 자기이해를 통해 전문적 준비를 할 것'[변동적]이었다. 총 5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자에게 생기는 정서를 자각해야 한다', '상담자가 불안하고 내담자의 인정을 받아야

표 3. 사례개념화 작업과정

| 영역                | 범주   | 빈도  |
|-------------------|--|-----|
| 사례개념화<br>작업<br>과정 | (1) 요소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상상해보기<br>(사례1)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들을 고려한다.<br>(사례3) 맞나 틀리나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내담자가 왜 그랬을까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본다.   | 변동적 |
|                   | (2) 요소를 맞춰보고 패턴을 잡고 이해하기<br>(사례1) 요소들을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한다.<br>(사례2) 사례개념화를 할 때 요소요소들을 엮는다.<br>(사례2) 퍼즐 맞추기를 한다.<br>(사례3) 가설을 세운다.   |     |
|                   | 1) (사례4) 현재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환경적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서 내담자의 문제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한다.<br>요소 (사례5) 구체적인 요소들을 계속 엮어 나간다(내담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서, 행동특성, 생각, 욕구, 관계갈등).<br>통합 (사례7) 사실정보와 현상학적인 정보,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하면서 느끼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이해된다.<br>하기 (사례8) 지적으로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더 직관적인 것 같다.<br>(사례10) 실제 이 사람의 문제, 호소하는 증상, 배경의 문제, 원인,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달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됐나, 상담목표, 전략, 최종적으로 종결과정까지이다. | 일반적 |
|                   | (3)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 세우기<br>(사례2) 상담목표를 형성해 가는데 사례개념화는 지도 같은 것이다.<br>(사례9) 패턴을 잡으면 전략을 세운다.   | 변동적 |
|                   | (사례1) 상담자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전략을 수정한다.<br>(사례2) 퍼즐을 수정하게 된다.<br>2) (사례9) 핵심들이 잡히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다음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증거들을 찾고 비슷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 상담자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개념화시키고 생각해 본다.<br>수정 (사례9)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놓쳤다는 것도 생각나고 왜 그것을 놓쳤을까 하면서 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나면서 검증한다.<br>/보완 하기  | 변동적 |
|                   | (사례1)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내담자에게 물어 본다.<br>(사례2) 과거사건이 지금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리를 해보라고 내담자에게 한다.<br>3) (사례4) 이런 것이 아닐까 내담자가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얘기하고 아니면 물려선다.<br>사례에 (사례5) 상담자가 발견하고 엮여지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 준다.<br>적용해 (사례8) 핵심감정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내담자에게 공감을 하면서 전달했을 때 확인되는 과정이다.<br>보기  | 전형적 |

표 3. 계속

| 영역                    | 범주  | 빈도  |
|-----------------------|---|-----|
| 사례<br>개념화<br>작업<br>과정 | (1)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할 것<br>(사례2) 초반에는 뭘 원하는지 많이 질문한다.<br>(사례4) 지엽적인 것을 불필요하게 탐색하지 않도록 한다.<br>(사례8)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증세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한다.<br>(사례9) 하나의 사건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탐색한다.  | 전형적 |
|                       | (2) 이론속지와 자기이해를 통해 전문적 준비를 할 것<br>(사례5) 상담자에게 생기는 정서를 자각한다.<br>(사례8) 상담자가 불안하고 내담자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br>(사례9) 수련 초기 상담자들은 이론에 충실해야 한다.  | 변동적 |
|                       | (3) 단정적 태도를 버리고 사례개념화가 수정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것<br>(사례1) 자기선입관을 가지고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br>(사례3) 모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br>(사례4)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내담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므로 언제라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전형적 |
|                       | (4) 해결사 역할을 지양하고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할 것<br>(사례3) 초보들은 현재문제를 잡고 어떻게든 고쳐야겠다고 한다.<br>(사례4) 상담자가 힘을 빼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애쓴다.<br>(사례8)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함께 있다는 것, 내담자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br>(사례10) 개념화가 살아나고 의미가 있으려면 내담자와 함께 해야 한다. | 변동적 |

하기에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다’, ‘수련 초기 상담자들은 이론에 충실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단정적 태도를 버리고 사례개념화가 수정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것’[전형적]이었다. 총 8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자가 이해한 것에 대해 내담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 또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등이 나타났다. 대다수의 상담전문가들은 수련 초기 상담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가운데 상담자의 추론을 확실한 것으로 성급히 판단해 버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내담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언급하였다.

모든 것이 가정인데 초보상담자들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어. 그건 가정일 뿐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걸 검증해야 하고 (사례3).

네 번째 범주는 ‘해결사 역할을 지양하고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할 것’ [변동적]이었다. 총 5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련기 초기 상담자들은 현재 문제를 잡고 어떻게든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함께 있다는 것, 내담자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등이 있었다.

### 사례개념화 평가준거

사례개념화 평가준거 영역은 적절한 정보의 양, 요소간 연결의 적절성,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정도 등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적절한 정보의 양:** 첫 번째 범주는 ‘적절한 정보의 양’[변동적]이다. 모두 2개의 사례가 해당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구체적이다’, ‘표피적으로 봤다’, ‘충분히 나온 정보를 무시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사례개념화 양을 본다’가 있었다. ‘적절한 정보의 양’이란 단순히 정보를 많이 보았는가와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을만큼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는가와 의미이다.

**요소간 연결의 적절성:** 두 번째 범주는 ‘요소간 연결의 적절성’[전형적]이다. 모두 7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왜 그랬는지 질문을 했을

표 4. 사례개념화 평가

| 영역       | 범주  | 빈도  |
|----------|---|-----|
| 사례개념화 평가 | 1) 적절한 정보의 양<br>(사례2) 정보가 표피적인지 본다.<br>(사례2) 정보가 충분한지 본다.<br>(사례3) 정보가 구체적인지 본다.  | 변동적 |
|          | 2) 요소 사이에 연결의 적절성<br>(사례1)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본다.<br>(사례3) 왜 그랬는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가를 본다.<br>(사례4) 예전에 나왔던 정보를 따로 따로 이해하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 본다.<br>(사례5) 원인과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   | 전형적 |
|          | 3)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정도<br>(사례1)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는가를 본다.<br>(사례2) 내담자 하나하나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는가를 본다.<br>(사례6) 연결, 관계에 대한 추리, 복잡한 입체적인 것을 그려냈는가를 본다.<br>(사례7) 심리학 개념을 잘 꿰어 맞추어서 나열해 놓아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br>(사례8) 가장 낮은 수준은 증상만 나열, 다음 수준은 어린 시절하고 현재와의 연관관계를 짓지만 추론이 아니라 내담자가 말한 것을 토대로 함, 그 다음 수준은 증거가 있으면서 내담자의 과거 히스토리를 언급하며, 내담자의 감정이 나오게 만드는 수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전형적 |

때 대답할 수 있는가’, ‘예전에 나왔던 정보를 따로 따로 이해하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 등이 있었다. 11명의 상담 전문가 중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사례 개념화를 평가할 때 각각의 요소를 얼마나 연결했는지를 중요한 평가 준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했을 때 애가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는 상담자는 개념화가 되어 있더라구. (중략) 개가 왜 돈을 훔쳤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썄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이러면 개념화가 안되어 있는 거지(사례3).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정도:** 세 번째 범주는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정도’ [전형적]이었다. 총 9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는가’, ‘내담자 하나 하나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는가’, ‘연결, 관계에 대한 추리, 복잡한 입체적인 것을 그려냈는가’, ‘사례개념화 내용에 사람(내담자)이 있는가’ 등이 있었다.

중세만 나열하는 수준이면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하고 현재하고 연관을 짓는데 다음에 보는 것은 실제로 이 연관을 짓는 것이 추론인지 아니면 상담에서 내담자가 말한 것을 토대로 한 것 인지를 봐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 어떤 과거 이야기와 감정이 나오게 했으면 그것은 상담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구나 하는 것이지요(사례8).

### 사례개념화 교수방법

사례개념화 교수방법 영역은 모두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이론 지도’, ‘모델링’, ‘연습’, ‘토론’, ‘피드백’ 등이 있었다.

**이론 지도:** 첫 번째 범주는 ‘이론 지도’ [변동적]이었다. 총 4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상담 이론에 밝아야 한다’, ‘어느 정도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논문을 가지고 사례에 적용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가르친다’ 등이 있었다.

**모델링:** 두 번째 범주는 ‘모델링’ [변동적]이었다. 총 3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많이 읽어야 한다’, ‘모델링이 제일 우선이다. 도제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던 사례를 계속 접하는 것은 좋은 공부방법이다’, ‘모델링을 통해 정보탐색, 구체화 등을 가르친다’ 등이 있었다.

**연습:** 세 번째 범주는 ‘연습’ [전형적]이었다. 총 6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지 그려보고 글로 써보도록 한다’, ‘시나리오를 쓰듯이 대사가 나오도록 한다’, ‘반응 자체보다는 전체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한다’ 등이 있었다.

사례개념화에 대한 얘기를, 반응보다는 반응자체보다는 전체 그림을 그리도록. 그러니까 사례개념화가 전체 그림인 거죠 전체 그림을 보도록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죠(사례6).

토론: 네 번째 범주로는 ‘토론’[변동적]이었다. 총 4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을 때 상담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추리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상담자와 내

담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얼마나 잘 느끼고 상담자가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한다’ 등이 있었다.

피드백: 다섯 번째 범주로는 ‘피드백’ [전형

표 5. 사례개념화 교수방법

| 영역         | 범주  | 빈도  |
|------------|---|-----|
| 사례개념화 교수방법 | 1) 이론 지도<br>(사례2)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상담이론에 밝아야 한다.<br>(사례8) 어느 정도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논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례에 적용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가르친다.  | 변동적 |
|            | 2) 모델링<br>(사례2) 사례를 많이 읽어야 한다.<br>(사례8) 모델링이 제일 우선이다. 도제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사례를 계속 접하는 것은 공부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br>(사례9) 모델링을 통해 정보탐색, 구체화 등을 가르친다.  | 변동적 |
|            | 3) 연습<br>(사례2)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그려보고 글로 써보라고 한다.<br>(사례3) 시나리오 쓰듯이 대사가 나오도록 한다.<br>(사례6) 반응 자체보다는 전체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한다.<br>(사례9) 수퍼비전을 받을 때 몇 사례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을 공부하면 속도가 붙는다.<br>(사례11) 경험이 쑥 쌓여서 생기는 과정으로 학습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전형적 |
|            | 4) 토론<br>(사례1)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을 때 상담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br>(사례3) 애가 왜 그랬을까, 지금 현재 애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시킨다.<br>(사례6) 추리하고 얘기해보게 한다.<br>(사례7)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상담자가 알아차리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한다.           | 변동적 |
|            | 5) 피드백<br>(사례3)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꼭 찾아보게 만들어준다.<br>(사례4) 조각들을 맞춰서 어디가 비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이 탐색할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 전형적 |

적]이 있었다. 총 6개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찾아보게 만들어 준다’, ‘조각들을 맞춰서 어디가 비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이 탐색할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등이 있었다.

*가르칠 때 난 그걸 많이 인용하는데, 모자이크 네가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맞춰서 일단은 그 그림을 좀 맞춰봐라. 그러면 어디가 비었는지 알 거고 그게 바로 그 다음 탐색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사례4).*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향후 사례개념화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상담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을 통해 그 면접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 사례개념화 작업과정, 사례개념화 평가준거, 그리고 사례개념화 교수방법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몇 가지 논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들은 기초적 요소와 심층적 요소(개인내적/대인관계적)로 나누어졌는데, 이는 Loganbill과 Stoltenberg(1983)의 ‘내담자의 심리내적 그리고 대인관계적 기능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 이운주(2001)의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 그리고 내담자의 대인관

계 특성’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Kendjelic(1998)과 이명우(2003)는 내담자의 현재 문제를 직접 일으키게 한 계기(촉발요인)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한 요인(유지요인)을 구성요소로 삼았는데, 역시 이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이 사례를 개념화할 때 활용하는 요소들은 용어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선행연구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은 요소를 통합하기, 수정/보완하기, 사례에 적용하기의 범주로 나누어졌고, 이 작업과정상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하는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Eells(1997), 이명우(2003), Kendjelic(1998), Hirsh와 Stone(1983), Martin(1990) 등이 사례개념화를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있는 단서들을 통합하여 우선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한 결과를 사례에 직접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가는 작업으로 규정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수련기 초기와 중기에 속하는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탐색할 것’, ‘이론숙지와 자기이해를 통해 전문적 준비를 할 것’, ‘단정적 태도를 버리고 사례개념화가 수정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것’, ‘해결사 역할을 지양하고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할 것’ 등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Eells, 1997; Barber & Critis-Christoph, 1993; Bruch, 1998)에서 개념적으로 제기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절한 정보의 양’이라는 사례개념화 평가준거는 Kendjelic(1998)이 내담자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

나는 단서나 정보들을 통합하여 복합적으로 설명했던 평가준거 ‘복합성’과 개념적으로 일치하고,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 이해 정도’의 평가준거는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연관지어 설명하는 ‘개별적 구체성’의 평가준거와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이명우(2003)는 개발한 사례개념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 Kendjelic(1998)의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그 유용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밝혀진 ‘적절한 정보의 양’과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 이해 정도’는 사례개념화 평가준거로서 그 유용성이 재입증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소간 연결의 적절성’의 평가준거는 Kendjelic(1998)의 ‘추론성’의 개념이 ‘기술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진술하는 정도’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요소간의 연결의 적절성이 추론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련기 초기와 중기의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를 학습할 때 이론지도, 모델링, 연습, 토론, 그리고 피드백 등의 방법들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례개념화 교육의 효과성에 상호의견 교류가 효과적이라는 Meier(1999)의 연구결과와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 제공이 효과적이라는 Holloway와 Johnston(198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명우(2003)는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의, 사례 연습 및 발표/토론, 그리고 피드백 등의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례개념화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례개념화 학습방법들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상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례개념화 전 과정을 탐색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수련생들은 구체적인 수퍼비전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작 수퍼바이저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련생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례개념화 과정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리한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상담현장에서 수퍼비전이나 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상담전문가들의 활동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직접 만나서 심층면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생겼던 제한점이기도 하지만, 실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상담전문가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전문가의 성별이 여자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담계의 현실상, 여자상담자가 더 많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전문가들의 주요상담접근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지 못하고 주로 절충적이거나 정신역동 쪽으로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우리나라 상담계에서 인지, 행동, 과정-경험 등의 차별화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상담전문가를 찾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에 능숙한 감수자가 참가하였으나, 감수과정을 한 명이 담당했다는 점은 감수자 1인의 의견에 의존할 염려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우리나라 상담전문가의 사례개념화 능력 향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례개념화 작업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제로 사례개념화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례개념화 평가준거를 보다 세부화하여 사례개념화 평가척도를 표준화하는 연구도 수퍼바이저들에게는 필수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례개념화 교수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상담능력 수준별로 가장 적절한 교수방법과 순서, 조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져서, 검증된 교육안을 수립할 수 있을 때 보다 충실한 상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담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직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의 전문성이란 이론과 실제가 연결된 실천적인 지식이므로, 훈련과 경험이 축적된 상담전문가의 직관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매우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다섯째, 사례개념화 교수방법에 대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상담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을 밝혀낸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례개념화를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김계현, 이운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김수현 (1997).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계획공식화 방법과 갈등공식화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129-155.  
 김은혜 (2001). 초보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준에 관한 연구: 상담전공생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간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은정 (2001).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개념화의 차이 - 개념도를 통한 인지 구조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명우 (2003).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명우, 연문희 (2003).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1), 143-155.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41-460.  
 이운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진희, 윤호균 (2001). 통찰명상 중의 경험내용에 대한 질적분석-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05-120.

- 장재홍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재홍, 안창일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85-113.
- Barber, J. P., & Critis-Christoph, P. (1993). Advanced in measure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74-585.
- Brammer, L. M., Abrego, P. J., & Shostrom, E. L. (1993). *Therapeutic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Bruch, M. (1998). The UCL case formulation model: Clinical application and procedures. In M. Bruch & F. W. Bond(Eds.), *Beyond diagnosis: Case formulation approaches in CBT*(pp. 19-41). New York: John Wiley & Sons.
-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mon, A., & Hiebert, B.(1990). Implications of counselor conceptualiz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 Eells, T. 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THE GUILFORD PRESS.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rsh, P. A., & Stone, G. L. (1983). Cognitive strategies and the client conceptualiz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566-572.
- Holloway, E. L., & Johnston, R. (1985). *Group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Hulse, D., & Jennings, M. L. (1984). Toward comprehensive case conceptualizations in counseling: A visual integrative techniqu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5(2), 251-259.
- Jongsma, A. E. Jr, & Peterson L. M. (1995). *The complete psychotherapy treatment plann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Kendjelic, E. M. (1998). *The efficacy of case formulation training on the quality of written case formulations*. A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Louisville.
- Knox, S., Hess, S. A., Petersen, D. A., & Hill, C. E. (1997). A Qualitative Analysis of Client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Helpful Therapist Self-disclosure in Long-term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274-283.
- Loganbil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 235-241.
- Martin, J. (1990). Confusions in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402-407.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D. M. Jr.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504-514.
- Meier, S. T. (1999). Training the practitioner-scientist: Bridging case conceptualization,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7(6), 846-869.
- Messer, S. B.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6(2), 81-83.
- Miguel, A. J. (1995). *The effects of African-American stereotypes on first impression, diagnostic evaluation, and case conceptualization ratings among counselors and therapi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Murdock, N. L. (1991). Case conceptualization: Applying theory to individual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355-365.
- Prieto, R. L. & Scheel, K. R. (2002). Using case documentation to strengthen counselor trainees' case conceptualization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335-345.
- Seem, S. R., & Johnson, E. (1998). Gender bias among counseling trainees: A study of case conceptualiz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7(4), 257-268.
- Stevens, M. J., & Morris, S. J. (1995). A format for case conceptualiz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1), 82-94.

원 고 접 수 일 : 2005. 2.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9  
게 재 결 정 일 : 2005. 5. 6



## An Exploratory Study of Counseling Experts' Expertise for the Case Conceptualization Education

Myung-Woo Lee      Chung-Min Park      Moon-Hee Lee      Young-Sun Li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he basic research which explored Korean counseling experts' expertise about the case conceptualization process to develop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eaching the case conceptualization. Researchers interviewed 11 counseling experts who have got the certificate of professional counselor(Korean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 more than 5 years about the consisting elements, the working process, the standards of evaluation, the teaching methods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The results of interview was analyzed by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as follows : First, the necessary elements of case conceptualization were basic and deep ones(intra-person / interpersonal relation). Second, the working process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was integrating the elements, modifying & making up for the first version, applying to the counseling case. Experts suggest to explore the necessary information clearly, to remember that the case conceptualization is amendable. Third, the standards of evaluating the case conceptualization were the amount of the adequate information, the fitness of the relations among the elements, the degree of whole understanding about the clients. Last, the recommendable teaching methods of case conceptualization were theory education, modeling, practice, discussion, feedback. Korean counseling experts' expertise for the case conceptualizatio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the practical foundation of teaching and training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 the beginning and middle level counselors.

*Key Words* : Case Conceptualization, Counseling Education, Counseling Experts, Counseling Expertise